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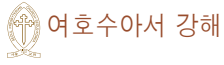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여호수아 23:1 ~16)

이종윤 원로목사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 7년 등 가나안 정복의 긴 여정을 마친 여호수아는 90세에 이르렀다. 그는 110세에 죽었다(수24:29).

23장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 두령, 재판장, 유사들에게 준 말씀이다. 거기엔 갈렙, 비느하스를 비롯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이들이 있었다. 지나간 시절의 동지들과 새 시대의 지도자들을 앞에 세워 놓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양하는 자리에서 한 여호수아의 말을 살펴보자.

I. 지난 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상기시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지난 날 행하신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다(3~5절).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적인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분할하게 하셨으며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게 하실 것을 확신 있는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큰 구원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 사건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모든 승리가 자신들의 힘에 의해 혹은 이방인에 의해 우연히 얻은 것이라고 여겼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백성들에게 종용하고 있다. 나아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 삼아 신앙의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II. 현재의 의무에 관하여 강조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1.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초기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가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즉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책, 곧 성경을 새 지도자들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복종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수23:1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면서 당부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

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진실 되게 걷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II. 잡혼을 금함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의 잡혼이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고 있다. 여기서의 문제는 다른 민족과 결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모세 자신도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여기서 문제를 삼는 것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말한 것이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방신들을 섬겼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같은 이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거짓 신을 좇고 악을 행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를 금한 것이다.

슬프게도, 사사시대와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했을 때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같은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 악마의 전술은 항상 옷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하다가 마침내는 목숨을 빼앗으며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침내 믿는 자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파괴시키려 한다.

여호수아의 경고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같은 경고를 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고후 6:14 - 16).

IV. 선택을 촉구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들에게 선택할 필요를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같은 선택은 예발 산과 그리스 산에서도 요청되었던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심판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택해야만 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 속에는 ‘선하다(good)’는 단어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택하신 분이시며 그의 길은 참으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 2018 사명자 대회 - 주간 자유키도 총 2,209시간!

은혜롭게 진행 중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2018년 사명자대회가 내일부터 4주차에 들어선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주간자유키도·성경읽기에 동참 중이다. 10월 27일(토) 현재 주간 자유키도가 2,000시간을 넘어섰다.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인 기도·말씀·전도 운동인 사명자대회가 지금 우리에게 더욱 간절한 것은 무너진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고,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중요한 기로에서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

아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천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 세계복음화와 한국교회의 갱신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시금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울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명자로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 이번 2018 사명자대회가 성공적인 기도회가 되도록 하자.

- 한국기독교 학술원 제53회 공개세미나 - 3.1 운동과 자유민주주의

2018. 10.29(월) 오후 2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제 53회 학술공개세미나
주제 : 3.1운동과 자유민주주의

일시 : 2018. 10. 29.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 (서울 중로구 대학로 3길 29)

제 1강 : 3.1운동·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
강사 : 박명수 박사 논찬 : 김용직 박사

제 2강 : 한국민주주의와 3.1운동의 의의
강사 : 김광동 박사 논찬 : 이민원 박사

주최 : 한국기독교학술원 Academia Christiana of Korea

(재)한국기독교학술원(원장 : 이종윤 원로목사)은 10월 29일(월) 오후 2시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제53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한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일제 36년간 국토·국민·주권을 송두리

째 빼앗겼던 우리 겨레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지 어언 99년이 되었다. 거주·소유의 자유·표현의 자유·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것은 우리에게 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3.1운동은 근대 민족사의 최대 범민족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치 원리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수의 정당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고,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국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 제53회 한국기독교학술원 신학공개세미나의 주제를 「3.1 운동과 자유민주주의」로 정하고 1부는 경건회로, 2부 제1강 '3.1운동·기독교 그리고 대한민국' -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교수,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김용직 박사(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제2강 '한국민주주의와 3.1운동의 의의' - 김광동 박사(나라정책연구원장) 이민원 박사(동아역사연구소 소장)가 논찬자로 나선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최현인 이재운 김광태·최종희 정복순 박분옥 문분순
이강인·허 숙 유명석 조응식 최종금 무 명 2인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육군 22사단 진중 세례식

11월 3일(토) 오전 6시 30분 출발

우리교회 비전2020 운동본부(본부장 : 최광성 장로)에서 주관하는 육군 제22사단 진중세례식이 11월 3일(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우리교회는 장병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교를 포함한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된다. 11월 3일(토)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한다. 많은 성도들의 참석과 기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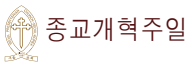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하박국 전장(1~3장)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 일시: 11월 4일(주)
 -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단, 미취학 교육1국은 하박국 3장
 - * 신청 :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 - 김혜언 집사 일반 장년 성도 - 사무국
-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 일시: 11월 17일(토) 오후 1시
- 시상 및 발표 :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회복해야 한다



페르디난트 포웰츠 작 (Ferdinand Pauwelsz) 'Luther95theses'

종교개혁이 올해로 501주년이 되었다.

종교개혁은 자유·평등·민주주의에 더해 자본주의의 근대성을 가져다준 위대한 종교적 혁명이다.

1517년 10월 31일 신부 마르틴 루터(1483~1546)는 독일의 작은 마을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문에 가톨릭에 정면 도전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다. 이 가운데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내용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되었다. 당시 루터의 나이는 서른 넷, 젊디 젊은 성직자였다. 그는 수도자 이면서 신부였고 또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선행을 실천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칭의(稱義)의 개념'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다. 그는 기독교 본연의 길을 찾고자 했다. 루터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과 구원이었다. 95개조 반박문은 즉시 독일어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기 시작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와 대화하고 싶어 했으나 교회는 응답이 없었다. 대신 독일 국민과 신자들이 응답했다. 이 일련의 일들로 인하여 루터에게는 생명의 위협도 가해졌다.

루터는 신앙의 문제, 즉 교회개혁에 집중하려 했으나, 교회는 루터를 적으로 만들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오로지 루터 신부에게 반박문 철회만을 요구했다. 개혁은 고사하고 대화조차 거부했다. 교회의 권위와 선택만을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했다. 결국 교회는 루터를 이단으로 내몰아 종교재판을 열어 교수형 내지 참수형으로 다스리길 원했고, 루터의 개인적 순수 신앙은 굴절되었다. 당시 독일

인들은 루터의 반박문 사건을 계기로 국가종교를 탄생시켰고, 이를 두고 권력과 종교의 야합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그러나 종교의 권력화는 모양만 달라지면서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들은 갖가지 유형의 권력 카르텔을 만들어 냈다.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개신교는 이런 권력 카르텔의 중심세력을 형성하면서 과잉 성장해 왔다. 교회는 숫자를 과시하고 커다란 교회를 짓기에 혈안이 되었다.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종교개혁 정신이 깃든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교회 안에서 루터의 신앙은 굴절 되고, 종교개혁의 본 뜻은 훼손되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권력을 카르텔을 깨고 도덕과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 루터는 가톨릭의 거대 권력에 맞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개신교를 탄생시켰지만 개신교는 시간이 흐르며 가톨릭과 방불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왔다.

한국교회는 어떠한가? 해마다 열리는 거창하고 거룩한 구호를 외치며 개최하고 있는 총회와 노회에서도 우리는 권력의 카르텔을 보며 절망하고 신음한다. 이는 개교회도 다르지 않다. 개혁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한 한국교회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도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현실을 냉철히 통찰하여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목회를 해야 한다. 목회자는 목회성공이라는 야망의지를 내려놓고,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편집부)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이영자권사 (9교구, 예콤파도리)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 속에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이 시간까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셨고 그 아픔을 통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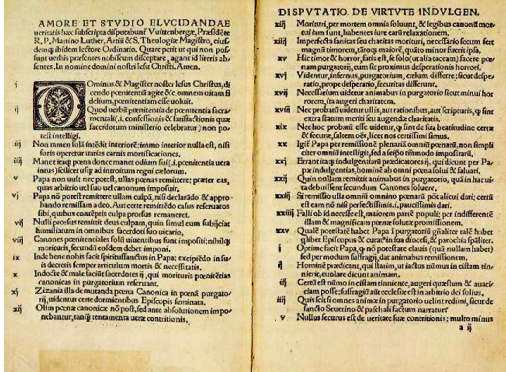
우리는 주님께 "왜?"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사방으로 비바람을 맞으며 외롭게 사투하는 주님의 몸뚱신 서울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기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시련을 감사의 노래로, 변하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사명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전도의 사도로서 한 목숨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못박은 마르틴 루터. 개혁은 이 종이 한장에서 시작되었다



김혜언 집사 (사명자대회 기도분과장)

1991년 11월, 서울교회가 빈손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차디찬 맨 바다에서 "Coram Deo"의 신앙으로 기도와 말씀만을 의지하고 시작할 때 저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당시 27살의 청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1:1 신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매우 강할 때였으니까요.

가족들의 지속적인 권면과 협박(?)가운데, 저는 조금 늦은 92년도에 서울교회에 합류하여 대학/청년부를 거쳐 서울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키우며, 서울교회와 함께 성장하고 고뇌하며 아파하는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그 세월들은, 밤새 기도로 지키시고 풍돈을 아끼며, 시간을 쪼개고 몸을 바치신 권사님들과 장로님의 헌신된 모습들에 "제가 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배

님들의 신앙을 먹고 자란 그 20대의 청년은, 두 청년을 양육하는 중년이 되었고 2018년도의 사명자 대회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기도분과를 맡아 "자율기도신청"을 집계하여 보니, 매주마다 200여명의 성도님들께서 매일 말씀 통독과 함께 750시간 이상을 연이어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현황판을 적는 모습을 보신 어느 성도님께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를 않네~"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의 성함을 적어야 해서 매주 적어나가기도 힘들고, 칸이 너무 작아 옆칸으로 옮겨적기도 하고, 글씨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고, 예쁘게 적어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쉽 없이 참여해주시고, 제가 적지 못할 만큼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이 한 주에 한 시간이라도 참여하셔서 그 이름을 기뻐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현황판을 자세히 보시면 "가족"으로 기재한 분들도 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가족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명자 가족!' 대체사장의 견장과 흥패에서처럼, '믿음의 계대를 잇는 사명자 가정으로' 서울교회의 모든 가족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고, 기억되었으면 합니다.

반포동에서의 개척 시기를 거쳐 교회 건축과 입당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까지, 서울교회가 끝까지 부여잡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 "Coram Deo",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서울교회의 기치와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무릎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말씀으로 승부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교회 모습이니깐요.

27세의 청년은 이제 54세의 중년이 되어, 매일매일 기도와 함께 새벽에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사명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서울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지금의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저를 이어 계속 "주님, 제가 사명자입니다!"를 다짐하고 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의 대열에 꼭꼭 참여하셔서 함께 외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사명자입니다!!!"

권사회 야외 기도회

10월 30일(화)

권사회(회장 : 김찬진 권사)는 사명자대회를 맞아 권사회 회원들의 야외기도회를 베델하우스에서 갖는다. 일시는 10월 30일(화)이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제하로 장석남 목사님의 설교 후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교회에서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한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바란다.

■ 정정 : 지난 주 금주의 식사제공 중 김우진 집사 김일순 집사 가정용 이우진 집사 김일순 권사 가정으로 정정한다

동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0. 29(월) 한국기독교학술원 53회 학술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11.3(토) 사랑의 쌀운동과 몽골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이사회에서 각각 설교한다.

■ 금주의 식사 : 삼겹살 간장조림 이관규 장로 이순영 권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스려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 22사단 진중세례식을 통해 군선교와 민족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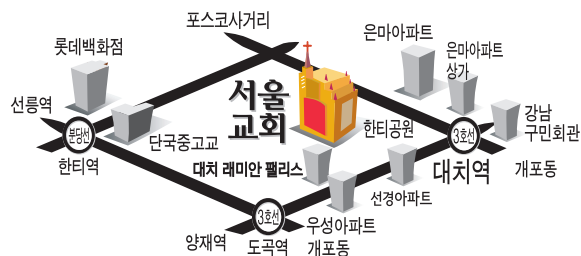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0월28일	주일	눅 14-15		애 1-5	
10월29일	월	눅 16-17		겔 1-8	
10월30일	화	눅 18-19		겔 9-16	
10월31일	수	눅 20:1-22:13		겔 17-21	
11월1일	목	눅 22:14-23:25		겔 22-27	
11월2일	금	눅 23:26-24:53		겔 28-34	
11월3일	토	요 1-3		겔 35-40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